

학습 주제 중심의 실용적 음악교과 교육과정의 구안

주 대 창*

음악교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의 음악수업을 안내하는 문서이므로 교사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장의 교수·학습 활동이 음악교과의 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문서 체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음악교과 교육과정은 음악 활동이나 음악 요소 또는 개념을 서술의 중심에 놓아 왔다. 그 때문에 교육과정의 지침을 교육 현장에서 학습 주제로 변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음악교과 목표의 분석적 접근을 통하여 음악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역량 중심의 학습 주제를 선정하고 그것을 체계화한 실용적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접근에 의한 학습 주제의 발굴 및 조직화로 음악교과의 취지에 부합하는 실용적 교육과정의 개발 방안을 제시한다.

※ 주제어: 음악교과 교육과정, 음악 학습 주제, 실용적 교육과정

차 례

- I. 들어가면서
- II. 목적과 내용 및 방법의 일원화
 - 1. 음악 교과교육의 구도 설정
 - 2. 현행 음악교과 교육과정의 점검
- III. 음악 교과의 실용적 교육과정 구안
 - 1. 개선의 초점
 - 2. 구현 방안
- IV. 나가면서

* 광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I. 들어가면서

음악교과의 교육과정은 해당 사회 및 시대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대체적으로 해당 개정 시기의 주요 이슈를 부각시키기 마련이며, 거시적으로 보면 각자 나름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다양한 시대와 지역을 모두 포괄하면서 동시에 다 인원 학습을 위한 완벽한 음악교과 교육과정의 도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음악교과의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이유도 전천후로 모든 사항을 고르게 다 담아내는 교육과정을 추구하기보다 상대적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매번의 음악교과 교육과정 개발에서 기존 것에 대한 절대적 우위의 대안을 찾기보다 상대적 우위의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 문제는 상대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준이 무엇이나에 있다.

효율적 음악교과 교육과정은 수업 현장에서의 적용이 수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음악교과교육의 안정성 및 목적 지향성을 구현해 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실정에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의 음악수업을 안내하는 핵심 문서이다. 다시 말하면, 이 문서의 내용은 학교 현장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실행 규정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바람직한 음악교과 교육과정의 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주목할 것은 지금까지 음악교과 자체의 동기에 의해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경우는 없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주도의 전체 교육과정 개정이 추진되면 그 후속 작업으로 음악교과의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현실이다. 현재까지의 관행을 보면, 대개 교과 교육과정의 개발 기관이 먼저 선정되고, 그 기관에서 연구팀을 꾸려 보고서의 형태로 교육과정의 안을 낸다.¹⁾ 그리고 교육 당국은 그것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공식 문서로서의 교육과정을 공포한다.

학문 발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체제는 상시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교육과정의 개발 또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보편적 구도를 벗어난다. 실제 적용을 위한 시기가 정해져 있는, 일종의 행정 집행문서의 확정 과정에 준하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실행 문서로서의 음악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위탁 연구가 발주되기 전부터 바람직한 교육과정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증폭될 필요가 있다. 음악교과 교육과정은 한편으로 학문적 체계성을 갖추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현장의 실

1) 차기 교육과정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연구기관 공모,” 교육부 공고 제 2014-273호, 2014년 20월 29일; 재공모, 교육부 공고 제2014-290호, 2014년 11월 17일.

용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 실용적 교육과정의 성공 여부는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 방향이 현장의 음악수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가에 달려 있다. 실제 적용에서의 안정성역시 실용성을 담보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음악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목표와 내용 체계에 대한 것이었다(양종모, 이경언, 2001, 2002). 실제로 음악교과교육학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음악교과 교육과정의 실용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상대적으로 긴 연구 과정을 거쳤다는(교육과학기술부, 2007, p. 75) 2007 개정 음악교과²⁾ 교육과정에서도, 전체 틀의 변화에 비하여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조치들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실제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 지침들의 진술 방식이 이전 교육과정의 것을 따랐기 때문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취 기준 및 그 활용 예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상위의 내용 체계가 이전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 따라 현장에서 수업에 바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상위의 체계와 하위의 활동 예시가 교과의 목적 및 목표와 쉽게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러한 지침을 개별 단원의 형태로 재구성하여야 비로소 수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향의 언급은 국내외 음악교과 교육과정의 비교 연구 등에서 일부 이미 제기되었으나 그 구현을 위한 구체적 접근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김원명 외, 2002; 권덕원 외, 2010, pp. 178-193; 민경훈 외, 2013, p. 173).

본 연구는 음악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과 방법의 연결이 곧바로 드러나는 실용적 교육과정의 구안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교과서 개발이나 수업 연구 형태로 교육과정의 지침이 새롭게 가공되지 않아도 교육과정이 해당 교과의 수업 공통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에서 음악교과 목표의 구성에 대해 먼저 살펴볼 것이다. 실용적 교육과정은 곧 해당 교과의 목표를 잘 도달하도록 이끄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연구의 관심은 목표에 담을 사항의 범위가 아니라 총체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있다. 그러므로 현행 교육과정의 목표를 분석적으로 고찰하여 요소들의 유기성을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위 영역을 구성해 볼 것이다. 이 연구는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 의도를 내세우지 않으며, 실용성 확보의 비교 대상을 위해 현행 교육과정을 활용해 보고자 할 뿐이다.

2) 국어과 또는 사회과 등과 다르게 한국어에서 음악과는 ‘음악 and’의 의미로 읽힐 수 있으나 한자의 음악과(音樂科)에 해당하므로 결국 음악교과와 동일한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과’ 대신 편의상 ‘음악교과’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Ⅱ. 목적과 내용 및 방법의 일원화

1. 음악 교과교육의 구도 설정

학교 음악교과는 도입 초기부터 음악을 통한 원만한 인격의 육성을 그 목적 내지 목표로 하여 왔다. 구한말의 음악교과 설명에는 “흥운(興韻)을 감발(感發)하고 심정(心情)을 고결(高潔)케 하며, 겸하여 덕성함양(德性涵養)에 자(資)함” 요지(要旨)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대한제국 학부령 21호, 1906). 오늘날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보통학교에는 창가(唱歌)라는 명칭의 음악교과가 개설되었는데, 거기에서도 “미감(美感)을 양(養)하고 덕성(德性)을 자(資)함” 요지로 한다는 기술이 있다. 나아가 “심정(心情)을 쾌활순미(快活純美)케” 한다는 내용도 있다(대한제국 학부령 23호, 1906).

이러한 거시적 관점의 음악교과 성격은 해방 이후³⁾ 역대 교육과정에서 변함없이 추구해 왔다. 현행 2009 개정 음악교과 교육과정에서도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성과 창의성,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을 키움으로써 음악을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교과”라고 규정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전인적 인간”의 육성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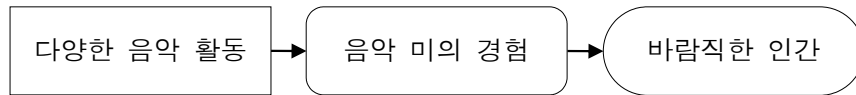
역대 음악교과 교육과정을 망라해 보면, 한국에서 학교 음악교과의 역사 100여년을 지탱해 온 명분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음악 활동을 하게 한다는 원론적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통해 미적 체험을 일구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음악 활동이 좋은 품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이 연결되어 교과의 정체성을 확보한다([표 1] 참조).

첫째, 음악교과교육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는 교과이다.

둘째, 다양한 음악 활동은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시킨다.

셋째,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함으로써 바람직한 인간이 되게 한다.

3) 정규 교육과정이 발표되기 전의 교수요목기에도 같은 방향의 음악교과교육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미군정 시기의 음악 분과 자문위원 노아(M. Noah)는 미국 음악교육가협회의 교육지침을 당시 한국의 문교부가 수용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문경숙, 2014, p. 32).



【도표 1】 미적 체험 중심 음악교과교육의 구도

그런데 만약 다양한 음악 활동이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할 의도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 외의 다른 사항들을 교과 목표에 합류시켜야 한다. 이것은 음악교과교육의 음악 활동이 미적 경험 위주로만 전개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음악교과에서 미적 경험 외의 사항이 함께 다루어져야 하며, 이것은 음악 활동에서 교육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여러 가지 역할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이 방향에서 보면 학교교육에서 음악교과교육이 담당하여야 할 임무는 음악에 대한 미적 경험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교육을 통해 육성하려는 음악 관련 품성 역시 미적 경험의 범주에만 머물 수 없다.

서양 예술 음악은 미학적 사고의 발달과 함께 아름다움을 추구해 왔다. 음악의 다른 기능적 활용이 약해진 것은 아니나 조직된 음향체로서의 아름다움을 공유하려는 문화적 공통성을 확보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음악적 아름다움의 실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거나 그러한 논의가 종결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음악의 아름다움은 무엇이며, 교육적 측면에서 음악의 어떠한 면을 활용하여야 하는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전히 열려 있다.

음악교육의 철학적 근거를 밝히려던 리머(B. Reimer)는 “음악의 본질과 가치”(the nature and value of music)에 의해 음악교육의 본질과 가치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2003, p. ix). 음악의 속성에 음악교육의 성격이 의존한다는 견해는 음악적 아름다움의 향유가 곧 음악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 방편이라는 주장과 흐름을 같이한다. 이 관점은 음악적 아름다움의 경험이 바람직한 품성의 필수 조건이라거나, 품성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음악적 작용 과정이라는 주장을 바탕에 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구도에 의하면 음악적 아름다움 혼자서 음악교육적 가치의 대부분을 형성해 내야 한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리머와 더불어 음악교육의 지향점에 대한 논의를 증폭시킨 엘리엇(D. Elliot)에 따르면 음악이라는 개념은 정의될 수 없다(1995, 128). 그는 그것이 여러 가지 맥락에 묶여 있고 또 가변적이므로 실제 행위로서의 음악에 초점을 둔 음악교육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가 차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질료라는 형이상학적 구도를 빌어 설명하더라도, 음악은 어떤 형태로든 형성되어야 하므로 질료 또는 재료로서만 음악을 상정할 경우 음악의 실체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음악으로 음악교육의 가치를 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음악이 그 자체로 교육적 관점의 가치를 확보하지 못하는데 그것에 의지하여 음악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규정할 수 있겠는가? 이 경우, 음악교육의 가치는 음악이 아니라 교육에서 가져와야 하므로, 그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음악교육의 성격은 음악교과 고유의 것이 될 수 없다. 즉, 음악 교과의 독립이나 자체의 목적 설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이러한 논의들에 비춰보면, 음악교과교육에서 지향하는 바람직한 인간이 음악적 아름다움의 향유를 통해서만 육성된다거나, 그러한 접근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음악적 아름다움, 즉 음악 미의 경험을 내세우는 쪽은 무엇보다 그 아름다움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한슬릭(E. Hanslick)이 주장한 음악적 형식미는 그러한 접근의 대표적 예에 속하나, 현대 음악미학에서 음악 미가 “음으로 울리며 움직이는 형식들”(tönend bewegte Formen, 1854/1858, p. 59)에만 있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것이 음악의 고유한 아름다움이거나 음악적 아름다움의 한 종류라고 하더라도 음악적 아름다움의 경험은 그것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음악을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보는 인간의 인식 체계가 소리에만 한정하여 작동될 수 없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분리된 인식의 결과가 바람직한 인간 육성이라는 범 교육적 목적 설정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Hegel, 1842, p.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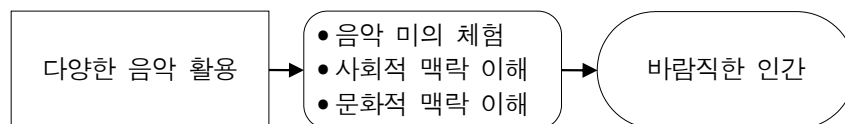
그러므로 교육 수요자의 공감을 전제하는 현대 음악교과교육에서 형식주의의 관점을 벗어나 음악의 아름다움을 보다 넓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관련주의적 아름다움이 인간의 품성에 왜,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 즉, 형식주의나 관련주의 등 특정 견해들을 취사선택하더라도 음악적 가치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엘리엇이 바라보는 음악교육은 외형적으로 음악의 다원적 가치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다원적 가치가 음악적인 것인지는 열려 있다. 음악이 무엇인지 규정도 못한 상태에서 실제의 다양한 음악적 현상을 그대로 음악교육에 투입할 수는 없다.

투입하려는 모든 교육 행위는 절대적 가치보다 ‘상대적’ 효율성에 의존한다. 이 세상의 다양한 인간 활동 중 원천적으로 비교육적인 것은 없다. 다시 말하면 다나름의 활용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음악 활동을 학생들에게 열어 놓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음악교과교육은 음악교과와 관련된 것을 모두 다 하는 행위가 아니라 더

효율적인 것을 선별하여 적용해 가는 행위이다. 음악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의 문제가 원론적으로 음악의 다양성에서 나오기 어려운 이유이다. 결국, 음악 자체의 가치보다 음악의 활용 가치를 중심에 놓고, 어떤 것들이 음악교과교육의 명분에 더 적절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음악교과교육에서 지향하는 바의 달성을 위해 음악적 아름다움의 체험만을 내세우는 것은 매우 편협한 시각에 속하며, 현대 사회의 보편적 음악교과교육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음악 내적 요소 및 그것에 의한 아름다움을 내세우는 교과 목표와 내용이 음악교육 수행의 방법과 잘 연계되지 않아 교과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음악교과 교육과정에서 내세우는 사항이 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하느냐는 물음에 답을 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음악교과는 선택 교과여야 한다고 반응할 사회 구성원이 많을 것이다.

미적 경험 외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오늘날의 학교 교육에서 바람직한 인간이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설정될 수 있다. 음악교과교육의 수요자가 사회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와 격리된 음악교육이 교육 수요자 중심의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움을 나타낸다. 사회적, 문화적 맥락의 범주는 학교 밖과 학교 안의 사항을 다 포괄하여야 한다. 낮은 연령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학교 내의 맥락, 즉 또래 집단의 맥락이 더 많이 고려될 것이고, 높은 연령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학교 밖의 사회, 즉 실생활에서의 활용 부분이 더 강조될 것이다.



[도표 2] 음악 활용 중심 음악교과교육의 구도

2. 현행 음악교과 교육과정의 점검

1) 목표 구성 요소 분석

현재 적용 중인 2009 개정 음악교과 교육과정은 공통교과의 명분 제시 측면에서 매우 다원화된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원론적 사항과 세

부적 사항의 유기적 연결이 드러나지 않아 음악교육의 효과를 담보하는 실용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거시적으로 포괄하는 사항은 매우 많고 또 가치 지향적이거나 그 흐름에 일관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밖으로 내세우는 당위성에 다양한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포함시키다 보니 이후 내용 구성 및 방법에서 원론적 수준의 당연한 사항을 반복하거나 연계성이 결여된 구호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공통교과로서의 음악교과교육(초등학교 3·4학년군, 5·6학년군, 중학교 1~3학년군)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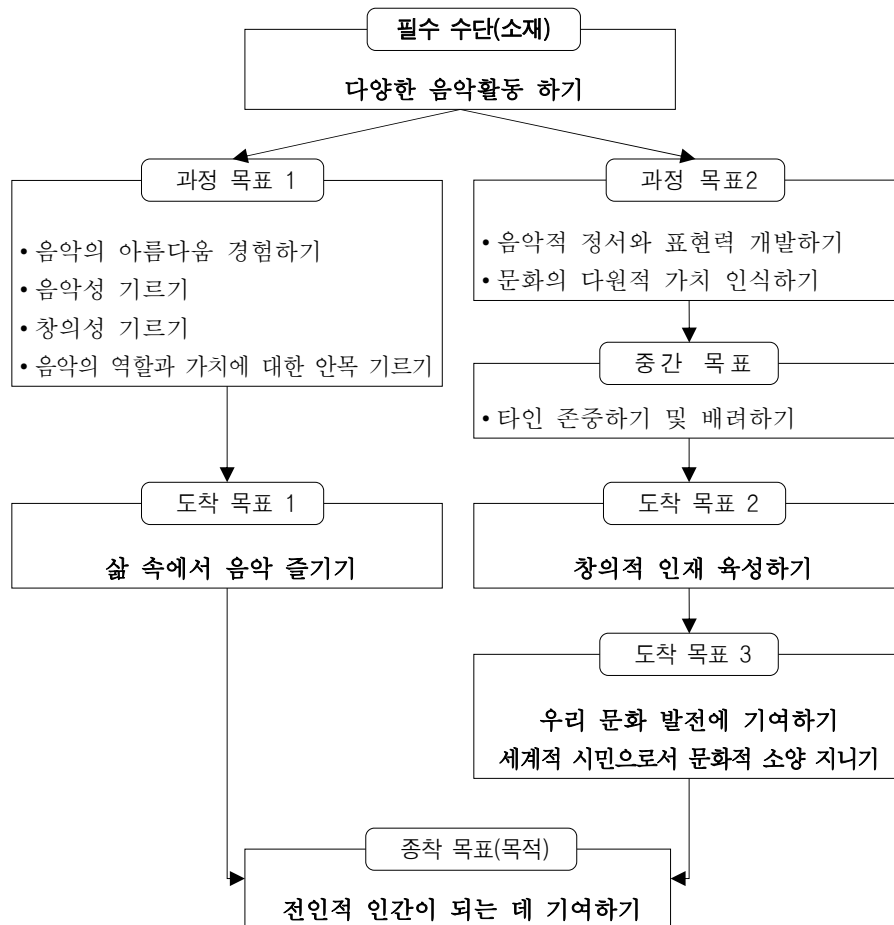
‘음악’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성과 창의성,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을 키움으로써 음악을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교과이다. 음악 교과는 음악적 정서와 표현력을 계발하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전인적 인간이 되는 데 기여한다.

이 목표를 분석하면 [도표 3-1]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요소]	[역할 분류]
① 다양한 음악활동 하기	수단(소재)
② 음악의 아름다움 경험하기	과정 목표 ㉠
③ 음악성 기르기	과정 목표 ㉡
④ 창의성 기르기	과정 목표 ㉢
⑤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 기르기	과정 목표 ㉣
⑥ 삶 속에서 음악 즐기기	도착 목표 ㉤
⑦ 음악적 정서와 표현력 개발하기	과정 목표 ㉥
⑧ 문화의 다원적 가치 인식하기	과정 목표 ㉦
⑨ 타인 존중하기 및 배려하기	중간 목표 ㉧
⑩ 창의적 인재 육성하기	도착 목표 ㉨
⑪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도착 목표 ㉩
⑫ 세계적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 지니기	도착 목표 ㉪
⑬ 전인적 인간이 되는 데 기여하기	종착 목표(목적)

[도표 3-1] 2009 개정 음악교과 교육과정의 목표 요소

이렇게 다양한 요소를 모아놓은 집합체에서는 각 요소의 층위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이해 및 활용의 편리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현행 음악교과 교육과정을 보면 모두 세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목표 항에 교과와 당위성 또는 추구 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서로 층위의 구별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연결되어 있다. 즉, 과정적 목표와 그것으로 성취시킬 도착점의 목표들이 병렬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 결과, 그 위계에서 의미적 정합성이 약하여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바와 그 안에 담게 될 사항의 위상이 모호해 보인다([도표 3-2] 참조).



[도표 3-2] 2009 개정 음악교과 교육과정의 요소 위계

이 도표에서 ‘과정 목표 1’과 ‘과정 목표 2’는 그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도착 목표가 다르다.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일과 음악적 정서 및 표현력을 개발하는 일은 같은 계열에 속하며 구별된, 또는 단계가 다른 활동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음악성을 기르는 것은 음악적 정서와 표현력을 개발하는 것과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 ‘과정 목표 1’로 분류된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을 기르는 것도 ‘과정 목표 2’에 포함된 ‘문화의 다원적 가치 인식하기’와 동종의 내용이다. 이것들은 이후 내용 체계 및 활동 예시에서 차별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짐작을 가능하게 한다.

창의성 개발이 과정 목표 안에 위치한 것은 그 다음의 도착 목표 또는 최종 목표와의 연관성을 확보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준다. 현재의 구도대로라면, 창의성은 음악을 삶 속에서 즐기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음악 향유의 실제에서 창조성은 대개 그 중심에 있지 않다. ‘도착 목표 2’로 제시된 창의적 인재 육성도 그 이전의 ‘과정 목표 2’ 또는 ‘중간 목표’의 사항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를테면 음악적 정서와 표현력을 개발하면 일반적 의미의 창의적 인재가 된다는 도식은 성립하기 어렵다. 모든 교과가 그러하듯이 음악교과교육이 창의성 개발에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나, 교과 목표로 제시되는 수준의 요소라면 하위의 내용을 규정할 정도의 정합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현재의 목표 진술에서는 창의성 개발에 대한 후속 단계의 조치가 매우 미약할 것이다.

창의성과 관련된 목표 요소는 제2차 교육과정 때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창의성이라는 독자적 명사 형태가 아니라 음악적 표현력의 수식어로 사용되었다. 즉,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자기표현과 협동 미에 대한 즐거움을 맛보도록 한다.”로 진술되었다. 제3~5차 교육과정 때는 창조성 개발 또는 함양 등으로 제시되었다가, 제6차 교육과정에서 다시 창의적인 표현 능력으로 바뀌었고, 이후 창조성 대신 창의성이 대표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품성이 창의적 인재에 대한 수식어로 나타나므로 음악교과교육의 목표는 사실 창의적 인재가 아니라 이 수식 부분으로 향한다. 말하자면 ‘과정 목표 2’를 따라 내려오면 음악교과교육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실시된다. 그 다음의 사항들은 그러한 교육의 효과, 즉 결과에 해당하는 셈이다. 음악교과의 최종 목표로 제시된 전인적 인간 육성 역시 음악교과교육만의 목표로 보기 어렵다. 목표와 목적을 사전적 의미로 구별하여 사용한다면, 현행 교육과정의 이 최종 목표는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목표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제적 대상”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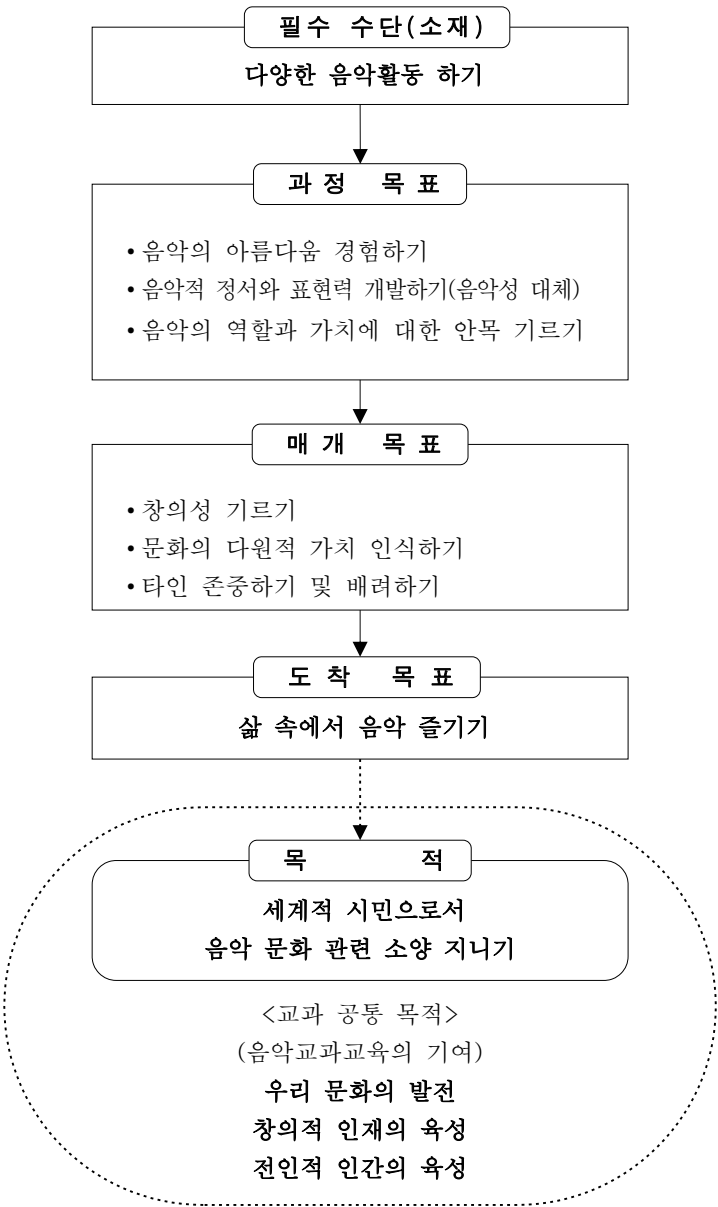
칭하고, 목적은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뜻하기 때문이다(국립국어원, 2014). 일반적으로 두 어휘 중 추상적 성격이 더 강하고 포괄적인 것이 목적이라고 보면, 전인적 인간을 추구한다는 것은 음악교과 및 다른 예술·문화교과의 공통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전인적 인간이 의미하는 바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음악교과의 목적으로 설정하였을 때 내용적 혼란이 없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사전적 정의로서 전인(全人)은 “지(知)·정(情)·의(意)를 모두 갖춘 사람”이다(국립국어원, 2014). 그러나 교육 분야에서 이 용어는 계몽주의 교육관의 대두 이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조명되어 왔고, 현재 상황에서도 그 의미의 뉘앙스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를테면 국어, 수학, 과학, 영어 등의 교과에서 전인적 인간이라고 지칭했을 때와 음악교과에서 그렇게 지칭했을 때의 대상이 다를 수 있다.

예술교과에서 전인은 다방면에서 유능한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대의 사회에서 설정한 최소한의 품성을 갖춘 사람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한다(주대창, 2014, p. 15). 능력 면에서 보면 전인의 개념은 다재다능한 인간을, 품성 면에서 보면 전인은 서로의 공통분모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전인적 인간은 그 개념을 명확히 한 후 전체 학교교육의 목적으로 내세우거나, 관련 교과군의 공통 목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유목화를 통한 목표 요소의 재구성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행 음악교과 교육과정의 목표 부분을 유목화 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도표 4]와 같다. 현행 음악교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현대 음악교육학에서 논의되는 음악교육의 목표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이 거의 다 들어있다. 그래서 소위 종합판 형태의 목표 진술을 이룬다. 물론 본 연구의 다음 도표에 제시한 구도는 현행 교육과정에 나타난 요소를 근거로 논리적 당위성을 조망할 수 있도록 연결한 것이므로 향후 개발할 음악교과 교육과정의 모습과 다를 수 있다.



[도표 4] 2009 개정 음악교과 교육과정의 목표 요소 유목화

이 유목화를 통해 보면, 거시적 목적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이 논리적 흐름에 장애를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우리 문화의 발전 동력이 갖는 상호 관련성이다. 말하자면 어느 것이 상위의 위상인지에 따라 이해의 범위가 달라진다. 이것은 우리 문화의 의미가 모호한 때문으로 보수적 관점과 진보적 관점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보수적 관점에서는 우리 문화라는 것이 과거의 고유성에 맞춰져야 하며, 그 결과 전통음악 중심의 음악문화 향유를 장려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우리 문화를 미래의 개척성에 맞춰 이해하면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문화 존중 및 다양성을 우선할 개연성이 높다. 교과 목적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진술에서의 우리 문화는 후자의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하지만 명시화 하지 않을 경우 전자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실제에서 그것이 국악교육의 중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다른 하나는 인재와 인간의 구별성이다. 만약 두 가지 어휘가 같은 의미로 쓰인다면,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간 또는 인재 육성으로 합쳐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적 의미로 인재는 “학식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국립국어원, 2014). 초·중등학교 교육에서, 더구나 음악교과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이며 뛰어난’ 사람을 육성한다는 것이 과연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통교육 차원의 공교육에서 뛰어난 사람의 육성에 치중하는 엘리트주의에 대한 경계는 어제오늘의 주제가 아니다. 그러한 선별적 교육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나, 그러한 엘리트주의는 보편적 교육 이념을 따르는 공공학교의 공통 음악교과에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

창의적 인재가 전인적 인간의 부분집합인지 아니면 별도의 집합을 형성하는지도 관심거리이다. 전인적 인간이 창의적 인재가 되면 교육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나, ‘창의적 인재가 전인적 인간이다.’라는 명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사회의 삶에서도 창의적인 ‘인재’가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체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창의적 인재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불행해진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인재는 대개 창의적이다.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을 인재라고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음악교과교육이 특출한 인재의 육성에만 치중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재목으로서의 인간보다 보편적 존재 가치를 지닌 인격체로서의 인간을 우선해야 보편적 음악교육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 말은 인재 육성보다 행복한 인격체를 우선하는 음악교과교육이 필요하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음악교과교육의 목적은 개별적 능력 향상과 더불어 공동체적 능력 향상에도 기여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가 전체 구성원들이 함께 가꾼 능력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객관화된 공동체는 또 하나의 개별체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음악교과교육이 소화하여야 할 공동체적 능력이라고 함은 개인의 능력이 공동체 속에서 활용되어야 하고, 나아가 공동의 이익 추구에 기여하는 방향의 능력으로 진화되어야 함을 말한다. 즉, 학생 개인의 음악적 활동 능력이 타인과의 관계 설정에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되어야 공통교과인 음악교과의 당위성이 더 살아난다.

3) 음악교과 내용과 목표의 정합성

이상의 목표 관련 요소들의 분석적 고찰을 통해 살펴본 결과를 현행 음악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영역과 기준,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 대응시켜보면 교과 목표에서 추구하는 사항들의 수용이 불균형적임을 알 수 있다. 전체 내용 관련 지침의 대부분은 ‘과정 목표’의 ‘음악적 정서와 표현력 개발하기’에 치중하고 있다 ([도표 4] 참조). 음악교과의 목표 중 소위 음악성 계발에 거의 올인 하는 모양새이다. 음악성이라는 개념의 정의가 음악교과교육의 입장에서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그것이 마치 음악적 지식과 기능에 갈음하는 것처럼 하위 내용들이 짜여 있다. 그 구도에서는 ‘음악의 아름다움 경험하기’조차 설 자리가 매우 좁다. 음악적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하라는 안내는 없고, 다양한 음악적 사항을 가르치라고만 안내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생활화 영역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 기르기’도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음악을 즐기게 하라는 안내와 우리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라는 안내가 그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다양한 음악의 역할과 가치 중에 굳이 우리 음악만을 내세우고 있어서 마치 다른 음악의 가치가 이미 다루어진 듯 한 느낌을 갖게 한다. 하지만 음악의 가치에 대한 내용은 생활화 영역에 있는 이 지침이 그 전부이다.

음악의 역할에 대해서는 감상 영역에 있는 ‘음악의 쓰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지침이 관계하고 있다. 이것 역시 좁은 시야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음악의 종류에 따른 쓰임을 알아보는 활동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음악 활용보다 훨씬 후순위에 속한다. 이와 관련하여, 생활화 영역의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에서 음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데도 그 성취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이 영역의 해당 지침이 전체 성취 기준의 내용 중 가장 단순하다.

또 하나의 눈여겨 볼 것은 고등학교 선택과목군의 일반과목 중 ‘음악과 생활’ 과목의 목표와 내용이 목표 진술의 측면에서 공통교과로서의 음악교과에 더 어울린다는 점이다. 공통교과로서의 음악교과가 추구하는 목적을 ‘삶 속에서 음악 즐기기’로 설정해 놓았음에도 실제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은 ‘음악 배우기’에 할당하고 있는 반면, 공통교과 밖에 있는 고등학교 일반 과목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훨씬 강화하여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4)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와 목표의 정합성

현대 교육과정은 교과교육에 대한 총체적 설계도의 의미를 갖는다. 교과의 목표나 목적뿐 아니라 내용까지 현장의 수업 수행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오늘날의 음악교과 교육과정은 수업 수행의 방법적인 면까지 안내한다. 이 방법에는 평가 관련 사항도 포함된다. 한국에서 평가를 자주 교수·학습 방법과 분리하여 제시하지만, 넓게 보면 평가는 교수·학습 방법의 일환으로 실시된다고 할 것이다.

한국의 음악교과 교육과정에서 지도 방법이 제시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교육과정 때이다. 당시에는 ‘지도상의 유의점’이라는 제목을 사용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지도 부분과 평가 부분이 구별되어 언급되었다. 이후 제6차에서 방법과 평가로 제시되다가, 제7차에 이르러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로 자리 잡았다.

역대 음악교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은 기본적으로 매우 소극적인 또는 원론적 사항만을 안내하였다. 이를테면 현행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향에 대한 서술은 교육과정의 재구성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목표 관련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교수·학습 계획은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에 근거”하라는 안내가 목표 관련 서술의 전부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그리고 “알맞은”, “창의적”, “융통성 있게”, “포괄적”, “전체적”, “종합적”, “적절한”, “다양한” 등 수식적 어구로 방법을 안내하여 실제 구안을 현장의 교사에게 일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에 따르면, 한편으로 매우 자유로운 적용이 가능하나,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지침이 존재하는 의미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

내용 영역별 지도에 대한 안내에서는 해당 내용 영역의 성취 기준을 이어받아 기술하고 있으므로 목표와의 관련성이 역시 가시화되지 않는다. 다만, 감상 영역에서는 매우 적극적인 목표 관련 진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앞의 지도 내

용과 연동되지 않거나 목표 진술 어구의 반복이어서 방법적 상세화에 제한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를테면 “음악의 요소와 음악의 종류 및 역사,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의 음악의 역할 및 가치를 폭넓게 이해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안내되어 있다. 또한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도 눈에 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그러나 각 학년군의 감상 내용을 보면 이러한 사항을 다루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과정의 내용 제시 부분에는 없는데 방법 제시부분에서 그러한 사항을 찾아 역으로 적용하여야 할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행 음악교과 교육과정의 평가에 대한 안내에는 교과 목표 및 내용과의 연계성에 대한 지침이 없다. 그 대신, 평가 도구 또는 실행 방식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평가가 교수·학습 방법과 통합되지 않고 분리되어 진술된 원인일 것이다. 평가를 교수·학습 활동의 일환으로 본다면 보다 긴밀한 목표 및 내용 관련성이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음악교과의 실용적 교육과정 구안

1. 개선의 초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엇보다 음악교과의 목표와 내용 및 방법이 유기적 연관성을 확보하여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용성이 증가한다. 교육과정의 준수는 지엽적 지침의 실행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 즉 목표의 효율적 달성에 있다.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하위의 내용이나 방법들을 동원하여야 해당 교과 목표가 잘 구현되는 구조가 도출될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과 방법이 목표 달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교사에게 각 단계의 지침들을 그렇게 연결시키도록 강요하는 교육과정이 비효율적 교육과정의 대표적 예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목표는 하위의 내용과 방법을 기속(羈屬)할 수 있어야 하고, 하위의 내용과 방법은 상위의 목표와 정합성을 이루어야 한다.

국내외의 다양한 음악교과 교육과정을 조망해 보면 기속력과 정합성을 갖춘 교육과정이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그러한 교육과정을 현장의 교사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다(교육부, 2015, pp. 15-16).⁴⁾ 이러한 구조가 갖

4) 이 견해는 필자가 다수의 전국 음악교사 연수 모임에서 여러 형태의 음악교과 교육과정을 예시한 후 면담한 결과이기도 하다.

취지지 않으면 교육과정에 제시된 사항이 현장에서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그 결과, 공통 교과로서의 구심점이 약하여 같은 교육과정을 사용하더라도 교사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의 수업을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교육과정은 막연한 사항들을 모아놓은 종합판이고, 현장의 교사들은 그 내용 중 일부분을 취하여 수업을 하는 교과 내 선택 수업의 양상이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수업이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그만큼 교사 자율성이 존중되고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한 현장 친화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 문제는, 그럼 왜 교육과정의 세부 지침을 개발하느냐에 있다. 특정 내용은 강요하고, 다른 내용을 풀어놓는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한 이유의 타당성에서 나오는 설득력을 기반으로 해당 교육과정의 실용성이 증가한다. 법체계를 빌어 말하자면, 법의 취지와 법의 집행이 일치하여야 그 법의 존재 의미가 살아나며, 법의 집행 역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사항에 입각하여 음악교과 교육과정에서 실용성을 높이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음악 내적 사항에 치중하는 것을 피하고 음악 활용 중심의 구조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특히 공통교과로서의 음악교과에 필수적이며, 이것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음악교과는 선택교과의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다. 음악교과에서 가르칠 사항을 음악에서 가져올 것이 아니라 음악교과의 목적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수요자인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실현이 난해한 희망 사항을 모두 열거한 백화점식 내용 나열을 지양해야 한다. 교육과정 개발에서 일부 사항을 그 자체의 중요도만 보면서 명시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비교육적 처방에 속한다. 그 자체의 중요성이 아니라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초점이 있어야 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내용을 선별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작지만 강한 응집력을 가진 내용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평가를 포함한 교수·학습 방법의 제시가 목표 및 내용 구현의 매뉴얼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현행 음악교과 교육과정처럼, 음악 활동과 개념 및 요소를 따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그것들을 퍼즐식으로 짜 맞추어 현장에서 실행하게 하는 것은 암호 해독과 같은 불편함을 준다. 말하자면 원론적 행정 지침과 유사한 명령문서 방식이어서 실용적 교육과정의 구조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이해 당사자들이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중의적 지침이나, 지엽적 사항을 강요하는 듯한 특정 내용 언급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의 개선을 위해 내용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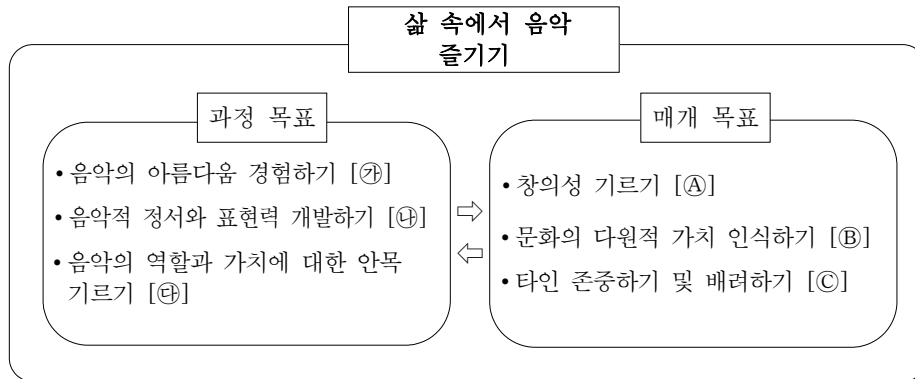
을 통합하는 일괄타결 방식의 방법 제시가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수업 매뉴얼 형태의 교육과정이다.

2. 구현 방안

학교 현장의 음악 수업에 가장 근접한 형태로 교육과정 지침을 만든다면 그것은 바로 학습 주제의 모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음악교과 교육과정이 교과서 개발 이전의 명령문서가 아니라 교과서 개발 및 수업 구상을 위한 실용적 안내서의 형태를 띠 수 있다. 이 접근 방향에서는 음악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어떤 역량을 키울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인다. 다르게 표현하면, 음악적 사향의 전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향의 체험 및 활용, 나아가 창조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 경우, 음악수업은 학습의 장만이 아니다. 학습과 더불어 향유의 장이 되고, 그 향유 능력이 주된 성취 역량이 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학년군별로 적절한 학습 주제를 모으고 나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교사들에게 해당 학년군에서 다룰 좋은 학습 주제를 제안하게 할 수 있다. 상명하달식의 특정 내용을 미리 제시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학생들에게 음악교과의 유용성을 체험하게 하는 실용적 학습 주제를 도출시켜야 한다. 음악교과의 목적 및 목표는 이러한 작업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다. 따라서 내용 선정 단계의 논의 이전에 목표 설정의 논의를 선행시켜야 한다. 즉, 적어도 교과 목표가 공감대를 확보한 상황에서 학습 주제 중심의 내용 선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 학생의 발달단계와 흥미도 등도 수십 년 전의 이론을 담고 있는 교육학 문헌에만 근거할 것이 아니라, 현장 교사의 실제 경험을 근거로 재조직되어야 한다. 예컨대 외국 어린이들이 특정 음악에 반응한 결과를 21세기 한국의 교실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학습 주제들을 모을 때는 당연히 목표 관련성, 학생, 교사, 학교의 여건을 함께 병기하도록 해야 한다. 뛰어난 음악 기능을 갖춘 교사에게 추천하는 학습 주제인지, 또는 특정 지역의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학습 주제인지, 나아가 그러한 학습 주제에 의한 수업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학습 주제의 수집을 가늠해 보기 위하여 현행 교육과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 목표 구도를 설정하면 [도표 5]의 모습이 나타난다.



[도표 5] 학습 주제 점검을 위한 목표 조망

이 구도의 후속 작업으로 [도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목표 구현을 위한 각 학년군의 학습 주제를 열거해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시키기 위하여 학년별로 해야 할 사항을 점검한다. 그 중에는 학년 공통으로 다루되 세부 내용이 심화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이며, 일부는 각 학년군에 따라 별도의 주제로 나타나는 사항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모아진 학습 주제들을 초등학교 3~4학년군을 대상으로 하여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리듬으로 반주해요
▶같은 음악 다른 연주	▶박자랑 놀자
▶어느 음악이 마음에 드는가?	▶딩더쿵 우리 장단
▶좋은 음악 함께 나누기	▶나는야 랩퍼!
▶음악 듣고 그림 그리기	▶몸으로 만드는 음악, 몸타!
▶장면(그림, 사진, 동영상 등)에 어울리는 음악	▶소리에도 색깔이 있다
▶이야기에 어울리는 음악	▶도깨비 음악/유령 음악
▶세계의 음악	▶종이 음악 만들어 발표하기
▶음악에 얹힌 이야기	▶작은 음악회
▶노래하는 즐거움	▶함께 부르는 노래
▶노래를 잘하려면?	▶위로를 주는 음악
▶계이름으로 배워 봐요	▶음악이 쓰이는 곳
▶어린이들의 옛 노래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절 그 노래
▶악기 놀이 리듬 놀이	▶어디에서 어떻게 음악을 들을까?
	▶음악이 없다면?

[도표 6] 학습 주제 수집의 예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고려하여 대개 제재곡 모집단을 만든 후 그것을 각 단원에 배분한다. 음악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학습 주제의 선정에서도 같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음악교과 목표를 고려하여 학습 주제들을 모은 후 그것들을 해당 목표들과 연계하여 각 학년군에 배분할 수 있다. 물론 하나의 학습 주제가 다중의 목표를 포괄할 수 있으며, 하나의 목표가 여러 학습 주제로 분화할 수도 있다. 이 때 음악교과의 ‘과정 목표’뿐만 아니라 ‘매개 목표’까지 고려하여야 한다([도표 4] 참조>). ‘매개 목표’도 음악교과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공통교과로서의 당위성을 강화할 수 있고, 나아가 학습 방법 측면의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예시 주제들의 일부를 그러한 목표들과 연계시켜 보면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 ▶ 내가 듣고 싶은 음악: ㉠, ㉡, ㉢, ㉣
- ▶ 같은 음악 다른 연주: ㉠, ㉡, ㉢
- ▶ 노래를 잘하려면?: ㉠, ㉡, ㉢
- ▶ 어린이들의 옛 노래: ㉠, ㉡, ㉢, ㉣
- ▶ 덩더쿵 우리 장단: ㉠, ㉡, ㉢
- ▶ 종이 음악 만들어 발표하기: ㉠, ㉡, ㉣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되면 각 목표들이 어떤 활동들을 포괄하는지 이원분류표의 형태로 보여 줄 수 있다. 즉, 학습 주제의 선정 및 조직화가 이루어지면, 목표를 씨줄로 하여 학습 주제들을 분류한 후 그 조망표를 첨부 시킬 수 있다.

이 방식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을 각 학습 주제 아래에 바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평가 역시 학습 주제들과 연계하여 구체적 매뉴얼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일정 학습 주제들을 다룬 후 지필 또는 실기 평가의 방식으로 모아 실시할 경우, 어떻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예시할 수 있다. 또는 각 단원의 말미에 관찰 평가를 겸하여 전체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음악교과 교육과정이 구성되면 교과서 집필 및 수업 설계에서 목표 관련성이 훨씬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그 실용성도 제고될 것이다.

음악교과 수업에 도움이 되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이론이나 원리, 평가 기법 등을 교육과정 문서에 포함시키고 싶을 경우, 내용 및 방법 부분과 구별하여 해당 부분을 신설할 수 있다. 또는 그에 대한 세부 내용을 생략하고 교수법 관련 키워드의 형태로 안내할 수 있다. 예컨대 리듬 지도에서의 유리드믹스, 오르프 접

근법에서의 즉흥 연주 등을 모아 현대 음악 교수법을 조망하게 하고, 각 주제별 지도 방법의 안내에 기호나 악어 등으로 연동시킬 수 있다.

IV. 나가면서

음악교과 교육과정은 실용적 문서이다. 그리고 그 지향하는 바가 해당 문서에서 논리적 설득력을 갖춰 제시되어야 한다. 음악교과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솔하게 보여주고, 그러한 교육 활동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음악 향유 양상과 음악 시장이 소통 다변화 문화로 바뀌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민주 인권 사회에서 수요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미래 사회를 공동의 지혜로 개척해 나가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음악교과에서 내세우는 목표가 음악적 사항으로 달성되지 못한다면 역량 중심의 교과 내용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된다. 음악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학생들에게 작용하는지를 담보하지 않고, 그러한 사항을 체득하면 좋은 품성을 갖춘 바람직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막연히 믿을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교육은 믿음에 기초한 예측의 과정이나, 그 예측치를 확인 가능한 대로 최대한 실제와 일치시켜야 한다. 바로 이 일치 노력의 하나가 학습 주제를 중심으로 한 음악교과 교육과정의 개발이다.

일부에서는 각 학년군의 발달 단계 또는 난이도에 따라 효율적인 학습 주제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만약 음악 수업을 위한 학습 주제의 설정이 불가능하다면 음악교과교육도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음악 전수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마당에, 가르칠 교육적 주제를 설정하지 못한다면 결국 기능 및 지식 위주의 음악교육임을 자인하는 격이 된다. 그리고 다시 음악교과의 선택교과화에 대한 논의 또는 음악 사교육시장을 우선하자는 논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물론, 음악 사교육시장이 부정적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며, 그것마저 공교육의 틀에서 실하는 것이 현대 복지국가의 모델이다. 다만, 학교의 정규 교과교사가 음악을 가르치는 제도에 균열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 더 이익이 되겠는가라는 질문을 빼놓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예시한 교육과정의 구조는 지엽적 기능이나 지식 또는 활동 종류들을 단순 나열하려는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학자들의 입

장에 따라 다양한 사항들을 병렬의 방식으로 묶어 놓은 내용 체계에서는 그것의 목표 지향성이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고찰에서는 수요자를 포함한 음악교육 관련자들의 교과 목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 아래, 그 목표 구현을 위한 수업 아이디어를 모아 체계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만약 구체적 수업 아이디어를 낼 수 없는 내용이라면, 그것이 음악교과 교육과정에 들어올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가르칠 방안도 내지 못하면서 특정 내용을 교육과정의 필수 내용으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결정에 속한다.

학습 주제에 의한 음악교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음악교과의 내용 체계에 대한 논리성은 교과 목표 설정에서 확보하고, 지도할 내용의 타당성은 구체적 수업 아이디어의 경쟁력에서 찾게 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음악교과 교육과정의 최선인지는 아직 논의의 대상이다. 하지만 음악교과 교육과정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 미래지향적 음악교과의 패러다임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기존의 음악교과 교육과정들이 현장 친화력에서 약점을 보였고, 학문적 관점에서도 상당 부분 비논리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명분 있는 음악교과교육의 수행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교육과정의 도출에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7). **2007 개정 교육과정 개요**. 2007 개정 교육과정 설명 자료집.
- 교육과학기술부 (2012).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12].
- 교육부 (2015). 2015 교과 교육과정을 위한 현장 교원 의견수렴 결과. **2015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공통 지침**. 교육과정 개발 자료집.
- 국립국어원 (2014). **표준국어대사전**. 2014년 12월 13일 접속.
-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2013). **음악교육의 기초**. 교육과학사. 3판.
- 김원명 외 (2002). 국제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의 특성 분석. **음악과 민족**, 제24호.
- 문경숙 (2014). 미군정 시대의 한국음악교육 실태: 1945~1948). **음악교육연구**, 제43권 제3호.
- 민경훈 외 (2013). **음악교육학 총론**. 2판. 학지사.
- 양종모, 이경언 (2001). **음악과 교육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1-13.
- 양종모, 이경언 (2002). **음악과 교육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I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2-9.
- 이홍수 (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 주대창 외 (2014). **초등학교 음악 6 교사용 지도서**. 비상교육.
- Elliot, D. (1995). *Music matt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nslick, E. (1854/1858). *Vom musikalischen Schönen*. Leipzig: Rudolph Weigel.
- Hegel, G.W.F. (1842). *Vorlesung über die Ästhetik*. Hg. von H.G. Hotho. 2. Auflage. Berlin: Drucker und Humboldt.
- Reimer, B. (2003).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ABSTRACT

**A Preliminary Study on Developing a
Practical Curriculum for General Music
Education in School**

Dae-Chang Ju

A history of music class in Korean schools shows that the main goal of teaching music in school is accomplishing education for whole man. But a lot of what is learned in music class is musical skills and knowledge that hardly touch on the original intention of the general music education in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suggestion for ways of developing a practical curriculum that actualizes educational ideas of music class in school. This study analyses the elements of goals and contents for music class as a school subject in Korea and figures out a weak point in the present curriculum for music class. Finally, this research provides a alternative to develop a efficient curriculum for music class proposing new systematization of contents on the basis of learning themes related to goals of music class.

Key words: music curriculum in school, learning themes for music class, practical curriculum of music class

투고일: 11월 30일, 심사(수정): 2015년 2월 3일(2월 8일), 게재확정일: 2월 24일